

농촌체험이 다양한!

북부권





● 농촌체험이 다양한!

농촌에서 느끼는 여유와 그 속에서 건져 올리는
소중한 이야기가 충만한 여행!

농촌마을이 거기서 거기라고? 익산의 농촌은 다르다.
편하고 볼 것도 많고 재밌는 농촌여행이 기다린다.
감옥? 진짜로 갈 필요도 없잖아요?

고스락

교도소세트장

송림사

두동교회

성당포구금강체험관

성당포구바람개비길

용안생태습지공원

나바위성당



성당포구금강체험관

● 응포생태습지공원

● 성당포구바람개비길

● 나바위성당

응포면

용동면

망성면

여산면

낭산면

미륵산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익산시

익산시청

원광대학교

오산면

황등면

삼기면

함라면

● 고스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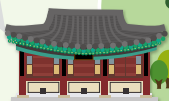
익산제1
일반산업단지

함열읍

성당면

● 송림사

● 두동교회



● 익산교도소세트장



응포면

함라산



●
농촌체험이 다양한
고스락

고스락

사람이 담그고 세월이 만드는 전통방식 장맛





고스락은 '으뜸', '최고'를 뜻하는 순 우리말. 그 의미만큼 국내 최대 규모인 2만여평의 장독 정원에 있는 3,500여개의 전통 향아리, 그리고 엄선한 국산 유기농 원료만을 사용해 자연발효숙성 시킨 향이 살아있는 전통장은 단연 으뜸.

웰빙과 힐링 시대에 발맞춰 전통을 과학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이곳 고스락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익산시티투어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릴 정도.

📍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424-14

🕒 평일 09:00~17:30 / 토요일 9:00~17:30 / 일요일 14:00~17:30

☎ 063-861-2288

🌐 www.kosrak.com

북부 PART

고스락



고즈넉한 고스락에서...



전통방식 그대로의 장맛은 물론 줄지어 서있는 향아리가 주는
고즈넉함은 바쁜 일상을 사는 이들에게 묘한 재미를 선사한다.

전통 향아리를 배경으로 찍는 인생샷도 필수.

유기농 원료만으로 자연발효 시킨 장맛을 보고 살 수도 있고,
장 담그기 체험도 가능한 고스락에서 잠시 세월에 몸을
맡겨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외국인 된장찌개 체험
외국인도 반한 그 맛!!
직접 만들어 먹으니 맛도 두 배!
감동도 두 배!

절대 빼먹을 수 없는
고추장 만들기 체험 코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즐거워 서있는 향아리 배경으로
인생샷 찰칵!!

●
농촌체험이 다양한
익산교도소
세트장

다인실 체험



익산교도소세트장

슬기로운 감빵생활 한 번 해볼까?



범죄자가 아닌 착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교도소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에서 인생샷 찍기 좋은 관광명소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익산교도소세트장에 한 번 가보자.

죄수 체험이 가능해 이색 데이트 코스의 끝판왕이라 불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곳.
촬영을 위해 꾸며놓은 세트장이지만, 높은 회색 담장에서부터 철조망, 취조실, 면회실,
독방 등 외형이나 내부시설 모두 실제 교도소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
TV에서만 볼 수 있었던 감방생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을 정도다.


신분증을 맡기고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파란 죄수복을 입는 순간, 아무 죄가 없어도
바로 죄수가 된다. 죄수가 싫다면 교도관도 가능.

연인간에 서로의 마음을 훔친 절도범 역할극도 종종 벌어진다.


교도소 내 고백버스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하며 평소 가지고 있던 고민과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거나 서로의 사랑과 우정을 다짐하는 고백팔찌 체험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 포인트.

 익산시 성당면 함남로 207

 09:00~18:00(17:30까지 입장가능)

 매주 월요일(영화·드라마 촬영이 있는 날)

 무료

 063-859-3836

●
농촌체험이 다양한
익산교도소
세트장

아 낚~~

넌 체포
하겠어!

법질서확립! 이동 중 잡담금지!

비록 세트장이기는 하지만, 커다랗고 튼튼해 보이는
회색 담장 사이 철문과 엄중한 경계를 하고 있는
감시초소의 위압감이 압권!

한 번 들어가면 쉬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에
발걸음이 조금 무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을 듯.
철문을 지나 들어가면 넓은 축구장을 사이에 두고,
자유에 목말라 있을 수감자들이
가득한 것만 같은 수감시설이 저만치 멀리 떨어져
있다. 잔디밭을 가로질러 건물에 들어서면,
이내 음침한 기운이 느껴지며 오싹하기까지 하다.





반성하는 삶의 자세

법과 질서의 확립

철문과 쇠창살의 연속

1층과 2층으로 이뤄진 수감시설의 감방은 가운데 복도와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길게 늘어서 있다.

각각 수감자들의 수감번호가 적힌 채 굳게 닫혀 있는 감방, 통로 곳곳 수감자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계도하기 위해 적혀있는 문구들, 이외에도 취조실과 면회실 등이 생생하게 재현돼 있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농촌체험이 다양한

교도소 세트장

7번방은 어디?

배우 류승룡과 갈소원, 그리고 수많은 조연들의 빛나는 연기로 전 국민의
심금을 울렸던 영화 '7번방의 선물'.

2층에 줄지어 있는 감방 중 하나인 7번방은 영화 속에서는 밝고 따뜻한
모습으로 국민들의 감동과 눈물을 자아냈지만, 실제로는 어두컴컴한 방안에
차디찬 바닥, 음침한 기운까지 여느 다른 감방과 다르지 않다.

아빠엄마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가족 단위의 관람객에서부터 이색 데이트를
즐기는 청춘들까지, 영화 속 장면들을 새록새록 떠올릴 수 있는 7번방
체험을 비롯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교도소세트장은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느껴보자.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촬영용 세트장인 이곳은 이미 2005년 영화 '홀리데이'를 시작
으로 '7번방의 선물', '저룩한 계보', '타짜', '식객', '해바라기' 등이
다녀갔다. 교도소 내부 한쪽에는 그동안 교도소를 거쳐 간
작품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고백 버스

나에게 고백한 당신을 체포합니다^^

교도소세트장 내 고백버스에서는 고백팔찌 체험, 소원향기탑 만들기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따뜻한 조명과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카페처럼 꾸민 버스 안에서 마음 편하게 차와 음료를 마시며
죄수로서는 누릴 수 없는 호사도 가능.
여유가 있다면 친구, 가족 혹은 나에게 편지를 쓰며 담담히 과거를 돌아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



●
농촌체험이 다양한
승림사

승림사

누구에게나 힐링 선사하는 자비의 도량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휴가를 떠나고 싶지만 일상에 치여,
시간이 없어, 할 일이 많아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부담 없이 찾아가 볼 만한 휴식처가
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함라산 송림사.
웅포면 송천리에 위치한 송림사는 시내권에서 차를 타고 3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힐링하기에 딱 안성맞춤인 장소다.
푸르른 산사의 녹음은 그야말로 힐링에 안성맞춤.
거창한 휴가계획이 아니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 일상탈출에 도전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시간.
‘송림사’라는 이름은 달마대사가 9년간 수도했던 중국의
‘송산 소림사’에서 각각 ‘송’자와 ‘림’자를 따서 지은 것이라고 한다.
달마대사가 중국에 선법을 전한 것과 같이 선풍을 드높이고자
했던 옛 스님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름에 담겨 있는 것.
고즈넉한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소리를 벗 삼아, 마음의
여유를 찾는 단기 출가여행을 떠나보는 것이 어떨까.

📍 익산시 백제로 495-57

☎ 063-862-6394

농촌체험이 다양한

송림사



송골송골 땀땀 땀땀을 닦아주는 산사의 녹음

724번 지방도를 따라가다 보면 쉽게 송림사를 알리는 표지판을 발견할 수 있다. 안내에 따라 약 800m 정도를 들어가면 멀찌감치 방문객을 반기는 일주문이 보이기 시작한다.

굳이 산사에 도달하지 않아도 고즈넉한 기운이 벌써 느껴진다.

해는 뜨겁지만 오솔길에 드리워진 시원한 그늘이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고, 송골송골 땀땀 땀땀을 산사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이 닦아내 준다.





살아있는 전통 사찰문화 체험의 장

주말은 물론 평일 한낮에도 일상탈출을 시도한 삼삼오오 발걸음들이 많다. 주말에는 단체 템플스테이가 진행되기도 한다.

●
농촌체험이 다양한
승림사

함라산 자락에 숨어있는 보물들

사찰 안에서는 17세기에서 20세기에 걸친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범종각과 우화루를 지나 보물 제825호로 지정돼 있는 보광전과 그 안에 모셔진
목조석가여래좌상, 그리고 보광전에 진채로 그려진 아름다운 벽화. 딱 인생샷 배경으로 그만이다.
보광전 오른쪽에 자리한 영원전에는 지장보살좌상과 시왕 및 그 권속들로 이뤄진 25구의
불상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
농촌체험이 다양한
두동교회

두동교회

아직도 ‘남녀칠세부동석’?



성당면 두동리에 있는 두동교회는 ‘ㄱ’자형의 한옥교회로 전라북도문화재자료 제179호로 지정돼 있다. 남녀유별의 전통이 무너져 가는 1920년대에 ‘ㄱ’자형 교회 건립으로 유교적 전통을 지켰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당시 사회의 상황과 건축적 특성을 간직한 초기 개신교 교회의 중요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두 동을 합해서 만든 교회라 ‘두동교회’라고 불리는 이 교회는 전복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와 함께 유일한 ‘ㄱ’자형 교회. 남녀유별의 유교적 전통에 따라 동선을 분리하였던 것이다. 지은 지 100여년이 되어가는 이곳에서 지금도 특별한 날에 예배를 본다고 한다. 건물 밖에는 종탑이 남아있고, 그 옆에는 방문객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무인카페가 있다. 자그마한 두동교회만으로 부족하다면, 지척에 있는 두동 편백마을 정보화센터나 편백나무숲, 편백마을 체험장 등을 함께 둘러보는 것을 추천.



●
농촌체험이 다양한
두동교회



우여곡절 끝에 세워진 거래요

두동마을의 초기 개신교인들은 인근 부곡교회를 다녔다고 전해지는데, 삼천석 지기 부자였던 박재신의 어머니 황한라와 부인 한재순 등이 바로 그들. 처음에 박재신은 집안 여자들의 교회 출입을 반대했지만, 부인 한재순이 임신하게 되자 자기 집 사랑채를 예배당으로 내놓게 되면서 두동교회가 시작됐다고 한다.





'교회 오빠'는 있을 수 없는 일~!!

교회 내부의 장마루는 당시 한국식으로 바닥에 앉아 예배를 보았음을 짐작케 한다. 강단에 서서 봤을 때 'ㄱ'자형 중 남북측을 이루고 있는 곳이 남자석이고, 동서측이 여자석이다.

처음에는 양쪽에 휘장이 쳐져 있어서 남자 쪽은 여자 쪽을, 여자 쪽에서는 남자 쪽을 서로 볼 수가 없었고 출입문도 따로 있어서 서로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한다.

📍 익산시 성당면 두동길 17-1

☎ 063-862-0238 / 063-861-0348

●
농촌체험이 다양한
두동교회

특별한 건축이야기

교회 천장 서까래를 비롯한 목재가 안면도산 소나무인데, 건립 당시 때마침 안면도 소나무를 실은 배가 군산 앞바다에서 침몰했고 목재들이 금강을 타고 두동리 근처 성당포까지 떠내려 왔다고 전해진다. 당시 교인들이 나무를 헐값에 사들여 두동교회를 짓는데 사용했다고 한다.



이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풍금

두동교회 안에는 교회의 역사를 알 수 있는 흔적들이 곳곳에 있다. 벽에 걸려있는 사진이며 나란히 놓여 있는 풍금 등, 놓치지 말고 카메라에 담아보자.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체험시설

두동교회가 있는 두동편백마을에는 무인찻집과 황토방펜션, 복합체험관 등이 운영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063-862-8600로 하면 된다.

두동정보하마을

- ▶ 체험내용 : 밀랍초 만들기, 옥수수따기 체험, 감자캐기 체험, 김치담그기 체험
(옥수수따기는 7월, 감자캐기는 6월, 김치담그기는 11월만 가능)
- ▶ 체험비(1인) : 8,000원 ~ 10,000원
- ▶ 체험가능 인원수 : 20명 ~ 40명

📍 익산시 성당면 두동길 15

☎ 063-862-8600

🌐 <http://dd.invil.org/index.html>



농촌체험이 다양한

성당포구
금강체험관

성당포구금강체험관

자연과 함께하는 농촌체험, 깔끔하고 다양한 시설에서
편안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바람개비길로 유명한 성당포구마을. 그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성당포구금강체험관.

이 체험관은 객실 7개, 세미나실 1개(50명 수용), 주방, 캠핑장, 바비큐장, 수영장, 풋살장, 농구장, 자전거체험, 고구마 캐기, 활쏘기, 자그마한 놀이터 등 다양한 체험거리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농촌관광코스 10선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트래킹하기 좋은 농촌마을인 성당포구마을을 대표하는 체험시설이다.

금강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끼고 있으며, 가족단위 캠핑에서부터 기업체 워크숍까지 가능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1박2일 코스로 체험관에 하루 묵으며 바로 옆 용안생태습지공원과 바람개비길, 인근 송림사 앞 벚꽃터널, 두동편백나무숲 등 트래킹 코스도 다양하다는 점이 강점. 보트 금강탐사에서부터 고란초 자생군락지 관찰, 약수터, 대나무밭 트래킹, 철새 관찰, 금강낙조로 이어지는 성당포구기행이 대표적이다.

무더운 여름은 물론, 봄·가을·겨울 등 언제라도 다양한 체험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성당포구금강체험관으로 아이들 손을 잡고, 또는 연인과 함께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 익산시 성당면 성당로 762

☎ 063-862-3918

🌐 <https://blog.naver.com/sungdangpogu>

농촌체험이 다양한

성당포구 금강체험관

트래킹하기 좋은 농촌마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농촌관광코스
10선 중 하나인 성당포구마을.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시라.
고민 말고 일단 한번 가보자.



성당포농악

조선시대 한양으로 공납되던 세곡을 운반했던
선원·선박의 안전과 호남평야의 풍년 등을 기원하며
성당포구 일대에서 이어져 내려온 흥겨운 옛 가락.
이를 계승·보존하고 있는 (사)성당포농악보존회는 매년
성당포구마을을 체험관 앞에서 정기발표회를 열고 있다.



성당포별신제

발복과 무사를 기원하는 민관 합동 제의 행사다.
금강에 접한 포구마을인 성당에는 조선시대에 조세미를
거둬 한양의 서강 나루까지 실어 나르던 성당창(聖堂倉)이
있었다고 한다. 쌀을 실어 나르던 조운선의 안전을 기원
하기 위해 매년 음력 정월 초에 별신제가 실시되고 있다.



●
농촌체험이 다양한

성당포구 금강체험관

나도 해 볼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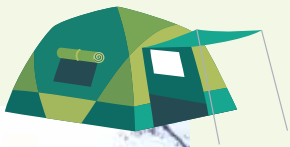
체험관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금강변을 탐방하는 생태체험은 물론 체험관 일원에서 금강성포작도농악배우기, 국궁체험, 뽕고구마 캐기, 김장 담그기 등 역사문화나 농촌생활을 직접 경험해 볼 수도 있다.



시골 농촌마을에 이런 시설이?

단순한 체험관이 아니다. 바람개비길과 생태습지공원을 비롯해
체험관 뒤편으로는 야외캠핑장과 풋살장, 농구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 여가활동 공간이 갖춰져 있어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하루를 남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농촌체험이 다양한

성당포구
바람개비길

성당포구바람개비길

형형색색의 바람개비가 춤을 추는 곳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있지만 한번만 가본 사람 없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성당포구바람개비길.

아침의 산들바람부터 저녁에 붉게 타오르는 강가너머의 노을까지 어느 시간, 어느 계절에 가도 나름의 낭만을 카메라에 담아올 수 있는 인생샷 코스다.

무지개빛 바람개비가 금강을 따라 줄지어 있는 이곳은 가족 단위는 물론이고 특히 연인들에게 인기만점이다.

어디를 배경으로 하든 저절로 작품이 될 정도로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

사진만으로 부족하다면 바로 옆에 있는 성당포구금강체험관에서 자전거를 빌려 달려보자. 페달을 밟을 때마다 춤추는 바람개비 사이로 금강의 싱그러움이 몸속 가득히 들어온다.

산복천을 가로지르는 나무데크 다리에서 사진 촬영도 필수. 길게 이어진 다리를 배경으로 한 구도라면 누구나 사진작가가 될 수 있다. 반짝이는 물결을 배경으로, 제각기 바람을 타고 돌며 뿜내는 바람개비들을 주변 삼아, 다시없을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주저 없이 떠나보자. 바로 성당포구바람개비길로~~!!

 익산시 용안면 강변로

농촌체험이 다양한

성당포구 바람개비길

사진만으로 부족하다고?

바로 옆 성당포구금강체험관에서 자전거를 빌려 힘껏 달려보자.

금강의 기운을 고스란히 맛볼 수 있다.

특히 연인과 함께 탄다면, 서로에 대한 배려(?)를 확인할 수 있다는~~^^





여기서도 찰칵! 저기서도 찰칵!

성당포구바람개비길에 오면
어디를 배경으로 하든 인생샷 각!



망설이지 말자!

사진보다도 훨씬 더 예쁜 실물 바람개비.
금강바람에 춤을 추는 바람개비를 보고 싶다면 주저 말고 지금 떠나자.

농촌체험이 다양한

용안생태
습지공원

용안생태습지공원

걷기를 좋아한다면,
푸름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맛볼 수 있는 곳



용안면 난포리 일원의 금강변에 조성된 67만㎡(20만평) 규모의 대규모 생태습지 공원에 가보자.
이곳은 나무데크가 깔끔하게 조성돼 있고, 청개구리광장, 풍덩이광장, 잠자리광장, 나비광장,
조류전망대, 야외학습장, 식물관찰원, 관찰데크, 갈대체험원 등이 마련돼 있어
아이들의 자연학습체험장으로 안성맞춤.
공원 내 30개의 작은 연못에 여름마다 피는 흰색 분홍색 노란색 등
다양한 종류의 수련은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사진 배경과 즐거움을 준다.
가을이 되면 제철을 맞이한 코스모스와 억새가 바람에 넘실넘실, 그야말로 장관을 이룬다.
이밖에도 이 공원은 철새의 쉼터로도 유명하다. 철새는 거울에 가장 많지만 가을에도 도요새,
물떼새 등이 먹이를 찾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일원 ☎ 063-861-9908



농촌체험이 다양한

용안생태 습지공원



용머리고을상생관

용머리고을상생관은 마을 이름을 딴 현대식 시설로 1층에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식당(10명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과 2층에 객실 10개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객실은 취사는 할 수 없지만, 편안하고 쾌적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특히 객실 창문을 통해 아트막한 산, 눈처럼 흰 억새밭, 장엄한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이 으뜸이다. 또 아이들이 물장구칠 수 있는 깊이의 인공계곡 물놀이장과 농구장, 족구장 등이 마련돼 있다.

푸름 속에서 잔잔히 흐르는 물줄기에
복잡한 일상을 흘려보내며 힐링하고 싶다면 강력 추천.

 익산시 용안면 강변로 1087-12  063-861-9908





뚝방길을 따라 밟는 페달

용안생태습지공원을 둘러싼 뚝방길은
대청댐에서 시작해 부여를 거쳐
성당포구와 웅포를 지나 군산까지 이르는
금강 종주 자전거길 코스



살아 있는 자연생태학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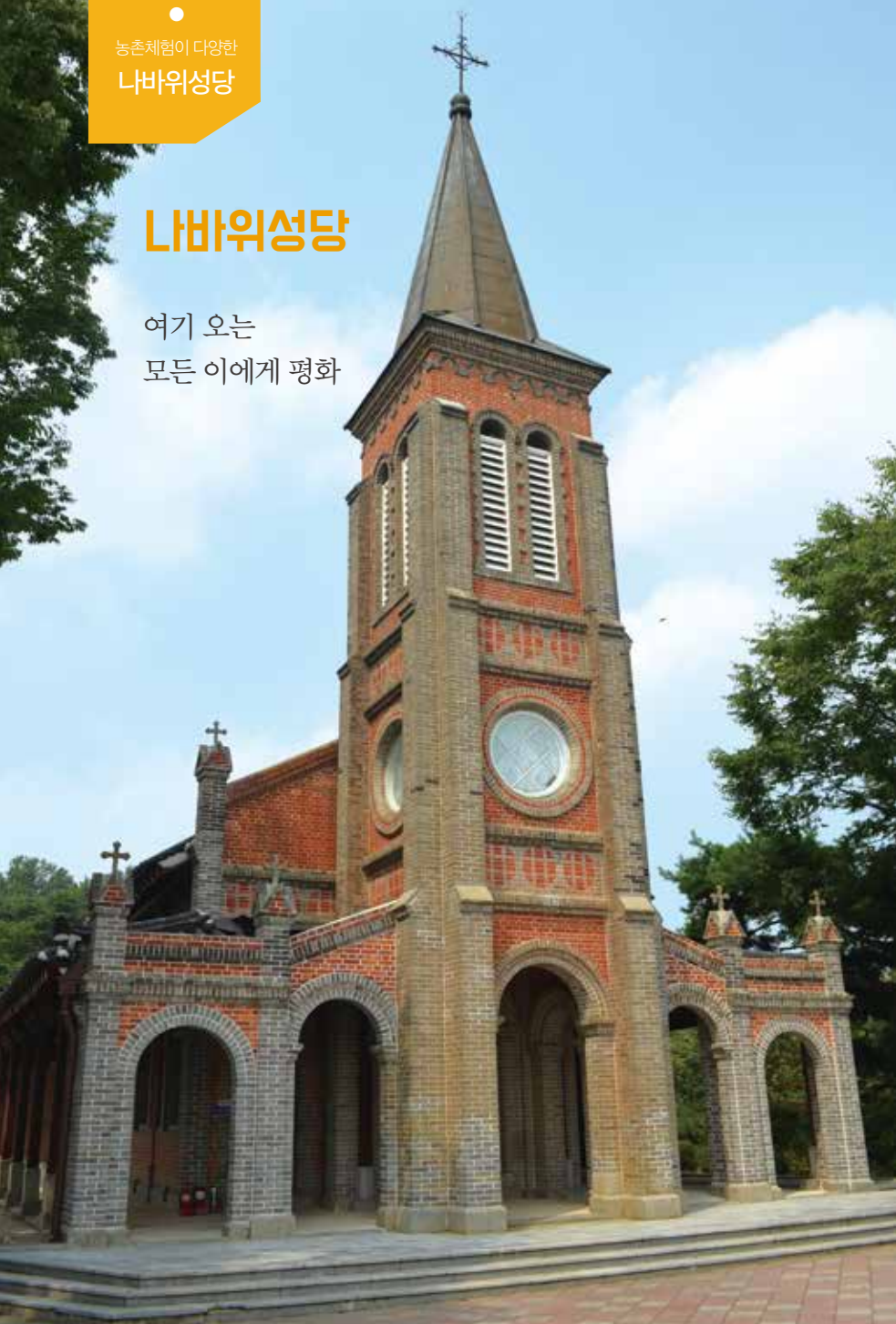
각종 곤충광장이나 조류전망대, 야외학습장, 식물관찰원, 역사발 등이 있는
용안생태습지공원은 그 자체만으로 좋은 볼거리지만, 아이들 교육적
측면에서도 효과만점.



●
농촌체험이 다양한
나바위성당

나바위성당

여기 오는
모든 이에게 평화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첫 발을 디딘 축복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는 망성면의 나바위성당.

함라산 송림사가 불교계를 대표 한다고 하면, 나바위성당은 천주교를
대표하는 종교유적지이다.

야트막한 산새에서 깃가를 간질이며 불어오는 바람과 여느 수목원
못지않게 꾸며진 녹음이 하나가 돼 방문객 몸속으로 흘러들어 마음
의 평화를 도와준다. '여기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평화라는 성경 구절
그대로다.

천주교인이 아니더라도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바라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의 장소. 평화의 길 위에서 발걸음을 내딛으며 홀로 묵상에
빠져 보는 것도 무더위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듯하다.



📍 익산시 망성면 나바위1길 146

☎ 063-861-8182

농촌체험이 다양한
나바위성당



독특한 동양과 서양의 조화



나바위성당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본당 건물. 한옥 목조건물에 기와를 얹어 한국적인 미를 물씬 풍긴다. 지금은 목조벽이 벽돌조로 바뀌어 있다.

특히 회랑이 있어서 마치 사찰과 같은 독특한 맛이 난다. 한국적인 미와 함께 서양의 고딕양식이 묘한 앙상블을 이룬다고나 할까.

우리나라 근대 건축양식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기도 하며, 성당 내부에는 우리나라 전통관습에 따라 남녀를 구분하기 위한 칸막이 기둥이 그대로 남아 있는 등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7년 국가 사적 318호로 지정됐다.



녹음 푸르른 평화의 성지

본당 오른쪽 길을 따라 화산(나바위)
정상으로 향하면 김대건 신부의 성상이
자리하고 있다.

이 성상은 김대건 신부의 고귀한 순교정신과
높은 덕을 기리기 위해 2007년 어느
신자 부부의 봉헌으로 세워졌다.



자연과 하나 된 성모동산

성당 옆으로는 약 1,200명 정도가 미사를 볼 수 있는 야외 성모동산이 있다.

성당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평화의 모후가 자리하고 있으며, 산세와 어우러져 이색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여기서도 금강이 한눈에?

성상 뒤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화산(나바위) 정상에 위치한 김대건 신부 순교 기념탑과 망금정이 자리하고 있다. 순교 기념탑은 1955년 김대건 신부 시복 30주년을 맞아 나바위 본당 신자들의 헌금과 협심으로 세운 기념탑이다. 그 옆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금강을 바라본다'는 뜻의 망금정. 묵상이나 기도를 통해 자신을 살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조용한 분위기.





이야기가 충만한 여행!



스토리가 있는
북부권



대체할 수 없는 이색체험

반나절 코스



국내 최대 규모인 2만여평의 전통 향아리 정원에서부터
죄수·교도관 체험, 무지갯빛 바람개비 배경 인생샷까지
남길 수 있는 여정. 고스락에서는 웰빙시대에 맞춰
유기농 원료만으로 자연발효 시킨 장맛을 보고 난 후
장 담그기 체험이 필수 코스 실제 교도소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교도소세트장에서는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고백버스 체험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또 형형색색의 바람개비가 춤을 추는 성당포구바람개비길
에서는 누구나 연예인처럼 나오는 인생샷을 찍어 보자.



성당포구바람개비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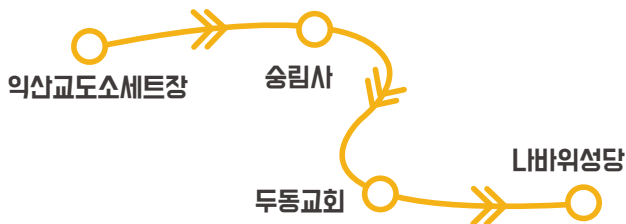
용안생태습지공원

SNS를 통해 유명해진 성당포구마을,
그 한가운데 자리한 바람개비길과 생태습지공원에
오면 누구나 전문 사진작가가 될 수 있다.
아름다운 금강변의 풍광과 강을 타고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자연생태 속에서 여유롭게 걸으며
휴식할 수 있는 이곳에 가족·연인의 손을 잡고
찾아가 보자.



4대 종교 순례길 코스

하루코스



착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교도소에서 죄수가 되어 고백체험을 했다면, 송림사·두동교회·나바위성당에서 각자의 종교에 맞는 속죄를 해보자. 물론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도 마음의 안식을 얻기에 충분하다. 여유가 있어 도심권에 있는 원불교익산성지까지 함께 한다면 그야말로 모자람이 없는 종교탐방 코스가 된다.

송림사에서는 함라산 자락에서 불어오는 싱그러운 바람을 느끼며 잠시나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두동교회에서는 아직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는 남녀칠세부동석의 전통을 맛볼 수 있고, 인접한 두동 편백마을에서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도 있다.

나바위성당은 야트막한 산새에서 꽃가를 간질이며 불어오는 바람과 여느 수목원 못지않게 꾸며진 녹음이 하나가 돼 마음의 안식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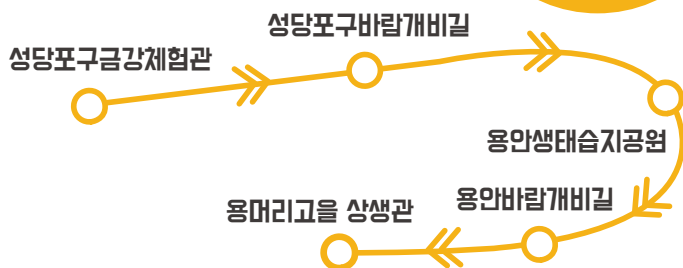
굳이 신자가 아니더라도, 오는 이의 발걸음을 막는 곳은 없다.

그리고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힐링을 선사하는 여정이다.



1박2일 코스

편안하고
여유로운 휴식!



금강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끼고 있으며, 가족단위 캠핑에서부터 기업체 워크숍까지 가능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이다. 1박2일 코스로 체험관에 하루 묵으며 바로 옆 용안생태습지공원과 성당포구 바람개비길에서 낭만을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다. 여름철에는 수영장을 운영해 아이들에게 인기만점.

게다가 인근 송림사 앞 벚꽃터널, 두동편백나무숲 등 트래킹 코스도 다양하다는 점이 강점. 체험관에서는 보트 금강탐사에서부터 고란초 자생군락지 관찰, 약수터, 대나무밭 트래킹, 철새 관찰, 금강낙조로 이어지는 성당포구기행 등 자체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익산시티투어로 편안한 여행~

1박2일 코스



성당포구금강체험관에서 숙박을 하며 인근 관광명소를 익산시티투어를 통해
편하게 둘러볼 수 있는 코스

익산시티투어 시간에 맞춰 남녀칠세부동석의 전통이

남아 있는 두동교회와 TV에서만 봤던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교도소세트장을 만날 수 있다. 지은 죄를 훌훌 털어버렸다면, 이제 자연과 함께
하는 농촌체험과 푸름 속에서 여유를 만끽하는 힐링코스가 남아 있다.

체험관에서 자전거를 빌려 인근 바람개비길과 생태습지공원을 시원하게
내달리며 인생샷을 남기고, 다시 체험관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며 여정을
마무리한다면 더할 나위 없다.